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113-154  
<https://doi.org/10.29212/mh.2025..134.1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이운룡의 『계본등록』을 통해 본 흥양현 도양 둔전 고찰

이수경 | 지역유산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 II. 임진왜란 중 이순신의 도양 둔전 설치
  - III. 『계본등록(啓本騰錄)』의 우슬곶 둔전과 녹도 둔전
  - IV. 맺음말

**초 록** 이 글에서는 고흥 지역 도양 둔전(屯田)을 연구하되 임진왜란 시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동시에 둔전에 앞서 도양 목장도 함께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기록을 좇아 도양 둔전에서의 소출, 도양 둔전 장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순신의 장계와 일기에 기록된 흥양의 도양 둔전 위치는 이운룡(李雲龍)의 『계본등록(啓本騰錄)』 기록에서 찾아졌다. 이순신의 기록 외 임진왜란 때 흥양의 목장 일부에서 군량미를 충당하였다는 이운룡의 기록을 근거로 도양 둔전의 실체를 밝혀보았다. 이어 흥양 지역의 둔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수군 군량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흥양 수군의 활약상도 일부 드러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 수군의 물적 기반이 고흥 지역 도양 목장의 둔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임진왜란 시기 도양 둔전을 살펴본 연구 성과가 드문 형편에서 도양 둔전 위주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흥양현의 물리적 역할을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추진되는 고흥 지역사 연구와 임진왜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흥양, 이순신, 이운룡, 도양 둔전, 녹도진

(원고투고일 : 2025. 1. 6. 심사완료일 : 2025. 2. 24. 게재확정일 : 2025. 3. 4.)

## I. 머리말

흥양(興陽, 고흥)은 일찍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흥양에는 송전(松田), 목장 및 둔전(屯田)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다. 왜구는 육지 최남단에 있는 흥양의 경제적인 산물을 노리고 수시로 침략하였다. 이에 흥양에는 수군진 4곳과 산성, 봉수 시설이 배치되었다.

고흥은 대부분의 지역이 곳(串)과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고, 주변에는 무려 170여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거니와 예로부터 물과 풀이 풍부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아 방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형·지세의 특징 때문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 이곳에 국영 목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1678년(숙종 4)까지 다수의 목장이 소속되어 있었다.<sup>1)</sup>

임진왜란 시기 흥양현은 전라좌수군의 절반이 있었던 곳이다. 전라좌수영의 5관(순천부·광양현·낙안군·보성군·흥양현)·5포(방답진·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 중 1관(흥양현) 4포(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가 위치한 곳이 바로 고흥지역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주역이 전라좌수군이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보면 전라좌수군의 절반이 있었던 고흥은 당시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 수군의 물적 기반은 흥양 도양 목장의 둔전에 있었다.

1) 송은일, 「조선시대 흥양현의 목장」, 『해양문화연구』 제2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9, 110쪽.

그동안 둔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sup>2)</sup> 임진왜란 시기 흥양 둔전에 천착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sup>3)</sup> 최근 들어 흥양 목장의 운영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송은일은 ‘조선 시대 흥양현의 목장’ 연구에서 흥양현 소재의 목장 치폐와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다루었다. 흥미로운 것은 흥양목장 감목(監牧) 관청을 『호남읍지』(1895)의 순천부 감목 관청과 연결하여 그 규모가 유사하였음을 추정하였다.<sup>4)</sup> 다만 임진왜란 시기 흥양 목장과 둔전을 연결하여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흥양의 목장을 알려주는 자료가 도양 둔전에 맞춰 작성된 것이 아니고 흥양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도양 둔전에 천착하여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순신이 남긴 기록 외에는 도양 둔전의 운영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 또한 찾기 어려웠다.

우선 흥양현에 설치된 목장을 살펴보니 10개소로 파악된다. 흥양 목장에는 본장(本場)인 도양 목장과 녹도, 소록도, 절이도, 시산도, 마질도(연흥도), 성두곶, 내나로도, 외나로도, 득량도는 도양 목장의 속장(屬場)이다.<sup>5)</sup>

2001년 고흥군에서 추진한 성곽 조사 중 일부 목장성을 대상으로 간단한 지표조사가 있었다.<sup>6)</sup> 그중 절이도 목장은 목장 성곽 일부가 보존되어 있어, 2002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

2) 백현주, 「고려시대 둔전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이장희, 「임진왜란 중 둔전경영에 대하여」, 『동양학』 제26호,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1996; 송양섭,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사학보』 제7호, 고려사학회, 1999; 「17세기 균영문 둔전의 확대와 경영형태의 변화」, 『역사와 현실』 제36호, 한국역사연구회, 2000; 「조선후기 군·아문 둔전의 경영형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논문집』 제32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1.

3) 고흥군·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임진왜란 흥양 해전사 연구』, 2016, 217~229쪽.

4) 송은일, 앞의 논문(2009).

5) 『목장지도』(1678년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6) 고흥군·순천대학교 박물관, 『고흥군의 호국 유적 I-성곽』, 2001.

다. 그 외 목장지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문헌에는 홍양 내 목장이 여러 곳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장 위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양 목장의 구체적인 장소가 밝혀져야, 그 일원에서 운영되었던 둔전지에 접근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쟁 중 둔전 설치의 배경과 경영, 폐단을 검토하였다. 조선·명군의 부족한 군량 충당과 기근으로 흠어진 민생의 구제, 국가 경비가 책정되지 않은 훈련도감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전란 중 강화 등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의 여러 섬과 순천의 돌산도, 홍양의 도양장, 해남의 황원곶, 강진의 화이도를 둔전지 적지로 언급하였다.<sup>7)</sup> 그러나 둔전이 일어난 둔전지의 실체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전란 중 한산도에 주둔한 삼도(三道)의 수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량이었다. 도양 둔전을 비롯한 홍양 지역의 둔전 생산량은 삼도 수군의 군량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도양 둔전을 연구하되 임진왜란 시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둔전에 앞서 도양 목장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기록을 좇아 도양 둔전에서의 소출, 도양 둔전 장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순신의 장계와 일기에 기록된 홍양의 도양 둔전 위치는 이운룡(李雲龍)의 기록에서 찾아졌다. 이순신의 기록 외 임진왜란 때 홍양의 목장 일부에서 군량미를 충당하였다는 이운룡의 기록을 근거로 도양 둔전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어 홍양 지역의 둔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수군 군량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홍양 수군의 활약상도 드러내 보고자 한다.

7) 이장희, 「임진왜란 중 둔전경영에 대하여」, 『동양학』 제26호,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1996, 165쪽, 168쪽.

이제까지 임진왜란 시기 도양 둔전을 살펴본 연구 성과가 드문 형편에서 도양 둔전 위주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흥양현의 물리적 역할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추진되는 고흥 지역사 연구와 임진왜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Ⅱ. 임진왜란 중 이순신의 도양 둔전 설치

둔전은 원래 변경이나 군사 요충지 부근의 황무지를 개간, 경작하여 군자(軍資)에 충당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후대에는 부(府)·군(郡)·현(縣) 및 영진(營鎭) 등 지방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 하였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칭했다.<sup>8)</sup>

둔전은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하여금 황무지·진전(陳田) 등을 개간·경작하게 하여 군수에 충당하는, 이른바 ‘차전차경(且戰且耕)’의 군사 목적용 특수 지목(地目)이다. 본래의 군수 목적용 토지를 포함하여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이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한 토지를 둔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맞아 둔전제는 새롭게 전환되었다. 전쟁 중 둔전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1592년(선조 25) 10월 도체찰사 류성룡에 의해서였다.<sup>9)</sup> 지방의 읍(邑)·진(鎭)·보(堡)·역(驛)에도 둔전을 설치 경영하도록 독려하였다. 둔전 설치는 전시 상황에서 군량의 보급 없이 현지에서 생산된 군량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인민의 단합, 요충지의 방어,

8) 『經國大典』 권2, 戶曹 諸田; 이장희, 위의 논문(1996), 155쪽.

9) 류성룡, 『서애집』 권6, 임진 10월.

곡식의 비축, 정병(精兵)의 양성이라는 전시 대책으로서 다목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sup>10)</sup>

1593년(선조 26) 전라도 둔전 설치는 각 섬의 목장에 기대하고 있음을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각처의 농사지를 만한 빈 땅이 해도(海島)에 많이 있는데 감목관(監牧官)은 별로 주관하여야 하는 일이 없고, 그의 휘하에 있는 목자(牧子)가 많은 경우는 1백여 호나 되고 적어도 수십 호를 밑돌지 않습니다. 근간(勤幹)한 사람을 감목관에 차임하여 목자들을 거느리고 힘이 닿는 대로 해변의 비옥한 곳을 개간하게 하고 종자는 해변 각 고을에 저축한 곡식을 옮겨다가 나누어 주게 해야 합니다. (중략) 개간이 끝난 다음에는 목자의 다소와 개간 면적이 얼마인가를 갖추 기록하여 이것으로 근만(勤慢)을 판별하여 상벌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성숙한 뒤에 반은 민간에 주고 반은 관에서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차임 된 둔전관은 기구·소·종자·인부 등을 조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병사·수사, 각포(各浦)의 첨사와 만호, 수령들의 경우는 도움을 받을 바가 있어서 힘쓰기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해사(該司)가 먼저 둔전을 할 만한 곳을 가려 근방의 병사·수사나 변장·수령들에게 관리하게 하고 편의에 따라 개간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같이한다면 어긋나서 이루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또한 해사로 하여금 조처를 강구하게 하소서.<sup>11)</sup>

섬에는 목장이 많았고 목장에는 비어 있는 초지(草地)가 있어서 경작이 용이했다. 각 목장의 감목관도 둔전관(屯田官)처럼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맡았다. 그 외 감사·수령·변장 등도 주도

10) 송양섭,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사학보』 제7호, 고려사학회, 1999, 129쪽.

11)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1593) 12월 3일.

적 역할을 하였다. 감목관이 해도의 개간 가능한 공한지와 목장을, 목자들을 동원하여 개간, 경작게 하고 호조나 비변사의 낭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였으며, 종자와 농우(農牛)는 해당 지역의 감사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둔전 경작 노동력으로 투입된 유랑민(流浪民)을 둔전 경작과 군사 훈련을 병행하면서 결국은 전투 병력으로 편입되었다.<sup>12)</sup>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는 약 159개 소의 국영 목장이 설립되었으나, 전란 후 1678년(숙종 4) 무렵에는 119개소의 목마장 가운데 말을 기르고 있는 곳은 겨우 46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 폐장되었다.<sup>13)</sup> 전쟁을 겪으면서 마적(馬籍)이 유실되었고, 특히 주민들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폐목장을 개간하였기에 목장이 거의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sup>14)</sup>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옥포해전의 승첩을 아뢰는 장계」(1592.5.15)에서 홍양현에 소재한 도양 목장의 말[馬]을 전투용 말로 적합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도양 목장 외 순천의 돌산도와 백야곶 목장은 운영 중이었다.

신의 생각은 순천 돌산도와 백야곶, 홍양 도양장에서 기르는 말 중에는 싸움에 쓰기에 적합한 말이 많이 있으니, 많이 몰아 잡아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어 살찌게 기르고 길들여 전쟁터에서 쓴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이 마음대로 아뢰 일 아니지만, 일이 아주 급해 겸 전라관찰사 이광에게 “말을 붙잡는 것을 감독할 관리를 선정해 보내게 하고, 말을 몰아내는 군

12) 송양섭, 앞의 논문(1999), 141쪽.

13) 『목장지도』(1678년 刊行)의 서문. 『목장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1678)과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본(1680~1684)이 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14) 김경옥, 「19세기 전라도 진도 목장의 운영 실태」, 『남도문화연구』 32호, 남도문화연구소, 2017, 357쪽.

사는 각 진포의 새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한 군사로 하여금 1~2 일을 한정해 포획해 조련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가 보고 합니다.<sup>15)</sup>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에서 관할하고 있는 목장의 말을 전쟁터에서 이용하고, 목장의 일부 땅에는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미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1593년(선조 26)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넓은 목장과 여러 섬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순천의 돌산도(突山島), 흥양의 도양장(道陽場), 해남의 황원곶(黃原串), 강진의 화이도(花尓島) 등지에 둔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sup>16)</sup> 목장이 설치되어 초지가 발달한 곳에서 군마(軍馬)의 충당은 물론이고 목장 일부를 개간하여 군량미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흥양현의 군사상 중요한 진에 배치된 군사[유방군, 留防軍]도 도양장에 들여보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나머지 빈 땅은 백성에게 주어 농사를 짓게 한 뒤 생산된 농작물을 관청과 반반씩 나누게 하고, 말들은 절이도로 옮겨 합치면 말을 기르는 데 해가 없고, 군대에서 쓸 물자에도 보탬이 됩니다.<sup>17)</sup>

전쟁 중 백성이 살 곳을 잃어 그들이 들어가 농사를 지어도 특별히 말을 기르는데 해를 끼칠 것도 없고, 허락만 한다면 말을 기르고 백성도 구할 수 있어 양쪽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다.<sup>18)</sup> 빈 넓은 땅을 논과 밭으로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군사

15)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玉浦破倭兵狀」(1592년 5월 15일).

16)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請令流民入接突山島耕種狀」(1593년 1월 26일).

17)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請設屯田狀」(1593년 윤11월 17일).

18)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請令流民入接突山島耕種狀」(1593년 1월 26일).

는 순천과 홍양의 군사상 중요한 진에 배치된 군사로 나가서는 싸우고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계로 요청하였다.

(전략) 지금은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니, 군량 부족은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둔전을 설치해 곡식을 얻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중략). 돌산도에는 신의 군관 훈련 주부 송성, 도양장은 훈련 정 이기남을 모두 농감관(農監官)으로 임명해 보냈습니다. 홍양 감목관 차덕령은 부임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중략). 앞드려 바라오니 위의 차덕령을 신속하게 교체해 주시고 (하략).<sup>19)</sup>

이순신의 둔전 계획은 조정의 승인을 얻어서 1594년(선조 27)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라우도의 화이도와 황원곶에는 종사관 정경달(丁景達)을 보내어 순시 검칙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순천 및 홍양의 유방군(留防軍)과 노약한 군사들을 제대시켜 농사짓게 하되 보습(犁口), 영자(鏟子), 쟁기 등은 각각 그 본 고을에서 준비해 보내라고 통보하였다.<sup>20)</sup>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장계에 따라 병사와 수사가 군사를 데리고 둔전을 할 수 있게 각 도에 전달하였다.<sup>21)</sup>

이순신은 순천 돌산도는 군관 훈련 주부 송성(宋晟)을, 홍양 도양장은 훈련 정(正) 이기남(李奇男)을 농감관(農監官)으로 보내어 백성과 군사들로 경작하게 하여 수확의 반은 관에 바치게 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경작한 둔전곡(屯田穀)이 5백 섬을 다음 해의 종자로 쓰게 한 것을 보면, 전라도 도서에 설치한 둔전의 규모가 방대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19)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請改差興陽牧官狀」(1594년 1월 10일).

20)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請改差興陽牧官狀」(1594년 1월 10일).

21)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1593) 10월 17일.

22) 이장희, 앞의 논문(1996), 173쪽.

『난중일기』에 기록된 전라도의 둔전 소출량이다. 도양의 둔전에서 벼 300섬을 신고 와서 각 포구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sup>23)</sup> 또한 도양장에서 거둔 콩이 820섬에 이를 정도로<sup>24)</sup> 소출량이 적지 않았다.

〈표 1〉 1595년, 1596년 『난중일기』에 기록된 둔전 성과

날짜		소출량	비고
1595년	2월 13일	벼 300섬	
	11월 13일	콩 820섬	
1596년	2월 8일	벼 352섬	
	2월 23일	벼 167섬	줄어든 것이 48섬
	2월 24일	벼 170섬	줄어든 것이 30섬
	2월 25일	벼 230섬	줄어든 것이 32섬
	2월 27일	벼 220섬	

이순신의 군관 훈련 주부 송성과 훈련 정 이기남을 농감관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한산도와 둔전지를 오가며 둔전 경작에 대해 이순신과 이야기를 나눈다. 농감관은 둔전관으로 볼 수 있으며, 감목관과의 업무는 분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송성은 고흥 출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장계와 일기를 통해, 송성은 급제한 자로 한후장으로 당포해전에 참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강화협상기 이순신이 도양 목장의 일부를 둔전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자, 이순신은 1594년 1월 송성을 돌산도의 농사 감독관으로 파견하였다. 이후 송성은 1594년부터 1596년까지 돌산도에서 농감관을 역임하면서 물고기를 잡아 군량을 지원하였기에 이순신이 포상 대상자로 염

23) 『난중일기』 1595년 2월 13일.

24) 『난중일기』 1595년 11월 13일.

25)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唐浦破倭兵狀」(1592년 6월 14일).

두에 두기도 하였다.<sup>26)</sup> 송성은 이순신의 군관 송득운(宋得運)의 부친이기도 하다. 『난중일기』에 송성과 송득운 부자(父子)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부자는 이순신 막하에서 군관으로 활약하였다.

이기남(1553~1613)은 1592년 5월 29일 거북선이 처음 출전했던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 돌격장으로 활약했고, 한산대첩에서는 좌돌격장, 1593년 이순신의 5차 출전에서는 우별도장으로 활약했다.<sup>27)</sup> 1594년부터 홍양의 도양 둔전 농사 감독관으로 일기에 여러 차례 언급된 인물이다.

통제사 이순신은 도양 둔전의 곡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관련 일기이다.

(생략) 도양장의 논에서 징수한 전세는 20섬 13말 5되이다. 백성에게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한 뒤, 생산된 농작물을 관청과 반반씩 나눈 것은 13섬 14말 8되이고, 콩은 1섬 7말이다.<sup>28)</sup>

1594년 8월 29일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중략) 도양의 목자(牧子) 박돌이를 처벌했다. 도적 3명 중에서 장손(張孫)은 장 100에 처하고, 얼굴에 도(盜)자를 새기는 벌에 처했다.<sup>29)</sup>

1595년 2월 13일 맑았다. 도양 둔전에서 징수한 벼 300섬을 실어왔다. 각 포에 나누어주었다.<sup>30)</sup>

1595년 6월 6일 비가 내내 내렸다. 송희립이 들어왔다. 그로 인해 들으니, “도양장의 농사짓는 땅의 형편은 홍양 현감이 그의

26) 『난중일기』 1596년 10월 11일 일기 뒤 메모.

27)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唐浦破倭兵狀」(1592년 6월 14일); 「見乃梁破倭兵狀」(1592년 7월 15일).

28) 『난중일기』 1594년 11월 28일 일기 뒤 메모.

29) 『난중일기』 1594년 8월 29일.

30) 『난중일기』 1595년 2월 13일.

마음과 힘을 다했기에 추수가 잘될 것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계원(繼援) 임영(林英) 또한 그의 힘을 다하고 있다.”  
라고 했다.<sup>31)</sup>

계원은 군량을 모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임영은 고흥 여산송씨 가문의 사위이다. 『난중일기』에는 홍양과 동북의 군량미를 제공하고 운반 직책을 맡은 계원 유사로 임영을 비롯하여 김덕린(金德隣), 류척(柳滌), 송상문(宋象文), 신흥헌(申弘憲) 등 총 5명이 나온다. 특히 류척은 고흥 출신으로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송상문은<sup>32)</sup> 고흥 출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 정유재란 때 1598년 순천 왜교성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강진현감 송상보(宋象甫)와 일가이다. 신흥헌은 고흥 출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향리로 이순신이 전란 발발 전 전라좌수사로 홍양현을 순시할 때 홍양 관청에서 아전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시는 장면이 있다.<sup>33)</sup> 1595년 한산도에 수군이 유진하고 있을 때, 신흥헌은 보리 76섬을 바치고 한산도를 떠난다.<sup>34)</sup> 이 외 일기에 신흥헌의 기록이 없다. 다만 보리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홍양에서 계원 유사로 활동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판옥선 전선 외 ‘홍양의 군량선’을 끌고 홍양과 한산도 진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sup>35)</sup>

당시의 현감은 홍유의(洪有義)였다. 홍유의는 황세득(黃世得)의 후임으로 1595년 3월 홍양 현감으로 부임하여 4월 한산도에서 교서에 숙배하였다.<sup>36)</sup> 홍양 현감 홍유의는 1595년 4월 한산도에

31) 『난중일기』 1595년 6월 6일.

32) 『난중일기』 1596년 2월 14일, 2월 15일.

33) 『난중일기』 1592년 2월 21일.

34) 『난중일기』 1595년 6월 19일.

35) 『난중일기』 1594년 7월 21일.

36) 『난중일기』 1595년 4월 14일.

들어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을 찾아뵙고, 5월 홍양현의 전선을 인수하였다. 5월 14일 홍양 전선이 암초에 걸려 뒤집혔다고 사도첨사 김완은 이순신에게 보고하였다.<sup>37)</sup> 홍양 대장 최벽과 선장 도훈도는 이순신에게 처벌을 받았다. 아마도 한산도에서 홍양으로 이동하면서 전복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6월 6일 군관 송희립은 이순신에게 보고하기를 ‘도양장의 농사가 잘되었다. 홍양 현감이 실력을 다했기에 가을에 풍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이 조정에 요청하여 도양에 둔전을 설치하였고, 실제 농사는 1595년 봄부터 이루어졌고, 도양 둔전 경영의 중심에 홍양 현감 홍유익이 있었다. 체찰사 한효순과 통제사 이순신이 1596년 윤8월 18일 홍양 남양 산성 등 홍양을 순시할 때 이들을 맞이한 현감은 홍유익이다. 『선무원종공신록권』에 ‘3등 행첨사(行僉使) 홍유익’로 기록되었다. 홍유익은 1597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홍양 현감으로서<sup>38)</sup> 삼도 수군의 군량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다.

1595년 8월 13일 비가 내내 내렸다. 독수(禿水)가 왔기에, “도양장 둔전 일”을 들었다. 이기남의 행동에 의심스럽고 어긋난 것이 많았기에 우후에게 급히 달려가 부정 사실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sup>39)</sup>

1595년 9월 3일 맑았다. 강응호는 도양장의 수확 일로 돌아갔다.<sup>40)</sup>

37) 『난중일기』 1595년 5월 14일.

38)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홍양 현감 홍유익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난중일기』에 홍유익의 이름은 없다. 『홍양현선생안』(1805, 고흥군 향토유산)을 근거로 삼았다. 『난중일기』 국역자들은 이 시기의 홍양 현감을 배흥립으로 주석을 달았다.

39) 『난중일기』 1595년 8월 13일.

40) 『난중일기』 1595년 9월 3일.

1595년 11월 13일 맑았다. 도양장에서 수확해 거둔 조세는 콩 820섬이다.<sup>41)</sup>

도양장의 농사를 짓는 데 쓸 소는 7마리다. 보성 임정로(林廷老) 1마리, 박사명이 1마리를 바치지 않았다.<sup>42)</sup>

1596년 2월 8일 맑았다. (생략) 홍양 현감은 둔전에서 징수한 벼 352섬을 바쳤다.<sup>43)</sup>

1596년(선조 29) 체찰사 한효순 일행과 통제사 이순신이 홍양 지역을 순시한 목적 중의 하나가 둔전의 운영 상태를 살피는 것이었다. 체찰사 이원익은 도양 둔전의 상황을 직접 보면서 군량미에 대한 대책을 통제사 이순신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도양 둔전에서의 큰 성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96년 윤8월 19일 맑았다. 녹도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찰사(이원익)은 많이 기뻐하는 얼굴빛이었다. 도착하여 묵었다.<sup>44)</sup>

1597년 10월 30일 맑았으나 동풍이 불었다. (중략) 저녁에 양밀(梁謐)을 도양장의 둔전 곡식을 제멋대로 나누어준 일로 장 60에 처했다.<sup>45)</sup>

1598년 2월 17일 고금도로 진을 옮긴 후부터 광양과 홍양의 목장 둔전에서 군량을 꾸준히 조달하였다.<sup>46)</sup> 도양장을 비롯한

41) 『난중일기』 1595년 11월 13일.

42) 『난중일기』 1596년 1월 1일 일기 앞.

43) 『난중일기』 1596년 2월 8일.

44) 『난중일기』 1596년 윤8월 19일.

45) 『난중일기』 (속)1597년 10월 30일.

46)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1598) 3월 18일.

홍양 지역의 둔전 운영이 큰 성과를 거두어 삼도 수군의 군량 공급에 이바지하였다.

임진왜란 동안 이순신의 둔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은 1627년(인조 5)의 기록에서 찾아진다.

일찍이 들으니, 고(故) 수신(帥臣) 이순신이 수사(水使)로 있을 때 여러 섬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이 섬들은 모두 방수(防守)하는 그곳이어서 입방(入防)하는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되, 경작과 수비, 망을 보는 것도 모두 군사들을 이용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큼도 폐해는 없으면서 소득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선책(善策)이라 말한답니다.<sup>47)</sup>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의 군량미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고흥의 둔전은 도양 목장에서 주로 개간되었다. 도양 목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고려 충렬왕 시기에 고이부곡에서 고흥현으로 되면서 고흥현 명칭은 1441년(세종 23)까지 사용하였다. 고흥은 조선 초기 1395년(태조 4)부터 1441년까지 왜구의 침략으로 보성군 조양현으로 옮겨갔다.<sup>48)</sup> 약 45년간 빈 고흥반도에는 수군진과 목장이 차례차례 들어섰다.<sup>49)</sup> 왜구를 피해 보성군 조양현으로 치소를

47)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1627) 11월 30일.

48) 윤경진, 「고려 말 조선 초 서해·남해안 僑郡 사례의 분석 -전라도·충청도·서해도 지역의 사례-」, 『한국사학보』 제31호, 고려사학회, 2008; 이수경 외, 「고흥현 읍치(邑治) 이동과 읍치 관련 문화재 고찰」, 『호남학』 제67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1.

49) 1406년(태종 6) 무렵 녹도진 설치, 1425년(세종 79) 여도진 설치, 1427년(세종 9) 사도진 설치, 1434년(세종 16) 이전 도양 목장(도양곶과 우슬곶) 설치, 1439년(세종 21) 발포진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장흥부와 보성군에 속한 도양, 두원, 도화 등이 1441년 홍양현으로 속하였다. 1457년(세조 3) 고흥포에 있던 축두진이 폐지되었다.

옮겼던 고흥현은 고흥반도 주변 수군진의 설치에 힘입어 다시 본 땅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바다에 임한 요해처에 4곳의 수군진 설치, 그리고 각각의 수군진에서 마복산과 수덕산에 봉수를 설치하여 왜구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고흥반도로 돌아온 고흥현은 그 관할 구역을 고흥반도 전체로 확장하면서 흥양현으로 출발하면서 백성을 보호하였다.

고흥의 목장은 도양 목장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도양 목장은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sup>50)</sup> 『세종실록』(1434년)에 기록이 있다.

전라도 장흥부, 목장이 2개소 있다. 도양곶(道陽串)은 국마(國馬) 421필이 있다. 우슬곶(兪瑟串)의<sup>51)</sup> 말은 134필이다.<sup>52)</sup>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몸집이 작고 흠점이 있는 말 1천 필이 바다를 건너기가 어려워 야위고 약해질 것이고, 또 더위가 닥쳐오기 전에 함길도(咸吉道)를 보내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육지에 도착하여 반쯤 살찐 것은 먼저 보내고, 야위고 약한 것은 도양곶에 방목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려 함길도로 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53)</sup>

장흥도호부의 도양현은 1441년(세종 23)에 흥양현으로 이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흥양현에는 절이도 목장과 녹도 목장이 추가 설치되었다.<sup>54)</sup> 도양목장·녹도·절이도 목장 외 1678년(숙종 4)

50) 『세종실록』에 편입된 지리지는 세종 14년(1432)에 편찬된 것으로 본다.

51)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슬곶, 1448년 『세종실록』에는 우두곶(牛頭串), 1750년경 제작된 비변사인 방안지도에는 우슬곶으로 표기되었다.

52)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53)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1434) 11월 28일.

54)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2월 17일-도내(道內)의 흥양 절이도(折爾島)

『목장지도』에는 소록도·마길도·시산도·성두곶·득량도·외나로도·내나로도가 있다.<sup>55)</sup> 도양 목장은 본장(本場), 나머지 섬들은 도양 목장의 속장(屬場)으로 운영되었다. 신설된 목장이 있지만, 일부는 중도에 폐장된 목장도 있다. 절이도·시산도·대화도·소화도에는 ‘左水使設屯’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678년 절이도와 시산도 목장 둔전 소출은 전라좌수영의 재정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장지도』가 제작된 1678년 당시 말을 키우면서 둔전을 겸하는 곳은 도양, 우슬곶, 녹도, 절이도, 시산도, 득량도, 성두곶, 내나로도 등 총 8곳이다. 특히 녹도진에 1466년(세조 12) 목장이 설치, 1678년 둔전이 있었다는 사실도 눈여겨진다.

이 지도를 통해 홍양의 목장 규모와 목장성(牧場城)의 유무도 알 수 있다. 도양곶·우슬곶·절이도·성두곶 등 4곳은 목장성 또는 목책(木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6)</sup>

---

는 주위가 2백 70리(里)인데,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말 800여 필을 방목(放牧)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회령포·금감도·돌산포·남도포·여란포 등 여러 포구의 선군(船軍)으로 목장을 수축(修築)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2월 21일-병조에서 사복시(司僕寺)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생략) 홍양의 녹도(鹿島)는 20여 필을 방목할 만하니...”, 그대로 따랐다.

55) 1678년 『목장지도』가 발간된 당시 득량도는 장흥부, 성두곶·외나로도·내나로도는 순천부에 속하였다. 지금은 고흥군에 속한다. 홍양현에 기록된 평내이도(평일도 추정), 사알매도(생일도 추정)는 지금은 완도군에 속한다.

56) 성두곶 목장성은 적어도 1678년 이전에 쌓은 목장성이다.



〈그림 1〉 『목장지도』(1678) 흥양현 편집, 출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2〉 『목장지도』(1678) 순천부·장흥부 편집, 출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1〉 도양에는 2곳의 목책이 있다. 세종 시기 국마 421필을 키웠던 도양곶과 134필을 키웠던 우슬곶이다.<sup>57)</sup> 지도에는 도양만 기록되었다. 도양곶과 우슬곶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반도상의 지형 곶(串)을 이용한 목장이었다. 도양곶과 우슬곶은 고흥반도의 서측 해안가이다. 1448년 우슬곶은 목장이 설치된 후 봉산(封山)으로 지정되었다. 우슬곶 소재 봉산의 명칭은 전한 바 없으나, 지금의 영귀산으로 추정된다. 세종 시기 흥양 땅에는 소나무가 잘 자라는 23곳이 조사되었다.<sup>58)</sup>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전라도 흥양현 고적 편에는 ‘도양폐현(道陽廢縣)은 현의 서쪽 30리에 있다. 세종 때 와서 이곳(흥양현)에 소속시켰고 목장을 만들어 목책을 세우고 그 위에 흙을 발랐으니, 둘레가 83보(步)이다.’라고 하였다. 83보 목책을 두른 도양 목장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도양읍 관리 관중 마을 앞에서 비선 마을로 올라가는 중간 좌측 편에 마장터가 있었다고 한다.<sup>59)</sup>

도양곶 목장지(牧場址)를 우슬곶과 연결한 작은 반도로 지금의 도양읍 장계리(長溪里)로 추정한다. 목장은 장계리 일대의 낮은 산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탐문에서 ‘관중 마을 목장 관청 터에서 장계리 장수마을로 넘어갈 때 파랑골을 넘었다. 장수마을 사람들이 관리에 있는 도양 초등학교, 도양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이 산을 넘어 다녔다.’라고 하였다.<sup>60)</sup> 「1872년 흥양현 지도」의 장구미(場仇味, 장끼미)는 길러낸 말을 수송할 때 사용된 포구로 보인다.

57)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58)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1448) 8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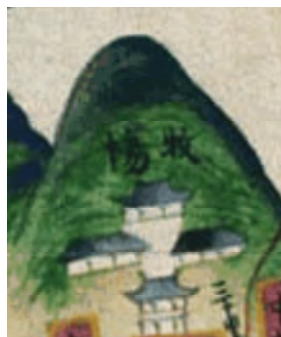
59) 송은일, 앞의 논문(2009), 131쪽.

60) 장경남님 제보(2020년 8월 25일).

관리(官里)라는 지명은 관청 소재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흥양 감목관의 업무처인 목장 관청(官廳)은 도양읍 관리에 소재하였다. 다음의 <그림3>·<그림4>에 도양 목장과 관련된 관청 시설 4채가 있다.



<그림 3> 『목장지도』  
(1678)의 흥양현 본장(本場) 관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4> 「흥양현지도」(1872)  
중 목장(관청), 규장각 소장

<그림4>에서는 관청 앞의 누정(樓亭)이 있다.<sup>61)</sup> 감목관 등 목장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이 지금의 도양읍 관리 관중마을에 있었다.<sup>62)</sup> 관중마을 회관 주변에는 큰 노거수 2그루와 흥양 감목관 정청(鄭淸)과 조중대(趙重岱)의 선정비 2기가 철비(鐵

61) 송은일은 『호남읍지』(1895) 순천부 본장(本場) 관청으로 外東軒, 內衙, 冊房, 內衙挾門, 行廊簾席門, 東軒挾門, 馬廄, 御牧門, 封進馬馬廄, 中門, 作廳, 使令直房, 廳庫子守直房, 罪人拘留房, 及唱直房, 一場假家, 二場假家, 三場假家, 通引廳, 監廳, 馬神堂(3곳), 驅從直房, 元稅庫, 本倉還庫, 補民倉還庫, 結米祖庫, 雲錦樓가 있었다고 한다(송은일, 앞의 논문(2009), 131쪽). 이중 누정 雲錦樓가 주목된다.

62) 도양읍 관리 1429-2이다. 조선시대 흥양 감목관 동헌 터라고 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도양읍사무소가 이 자리에 들어섰다고 한다. 감목 관청의 주춧돌 1기가 장경남댁 건물 출입구 계단에 있다. 이 집 뒷밭과 마을 앞에 땅을 파 보니 비석이 나왔다고 한다. 비석은 다리를 놓을 때 이용하였다고 한다. 소유자 장경남님 제보(2020년 8월 25일).

碑) 형태로 있다.<sup>63)</sup>

홍양 목장에는 군관(軍官), 목리(牧吏), 지인(知印), 봉진마위양군(封進馬喂養軍), 사령(使令), 납번목(納番牧), 목모군(牧募軍), 이마(理馬) 등이 있었다.<sup>64)</sup> 목장의 하부 조직원인 군두(群頭)·군부(群副)·목자(牧子)는 목장에서 목양(牧養)에 직접 종사한 사 람들이다. 한 목장에는 대략 암말 100필, 수말 15필, 합하여 115필 정도의 말을 사육하였다. 이들 말을 4명의 목자 또는 목 부가 각각 암말 25필과 수말 3, 4필씩 나누어 관리하고, 그 위 에 2명의 군부가 목자 2명씩을 감독하였다. 다시 그 위에 목장 장 격인 군두가 한 목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감 목관의 지휘를 받았다.<sup>65)</sup>

도양 둔전지(屯田址)는 도양읍 관리의 관리들(官里坪)로 추정 된다. 「1896년 궁내부의 홍양군 도양 목장 전답」(규장각 소장, 奎20137, 그림 12)에는 신양리·봉덕리·장전리·문곶지(門串地) 등 마을 이름이 있다. 1896년에는 도양 목장에 속한 전답이다. 다만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 도양 목장의 둔전으로 활용되다가, 조선 후기 어느 시기에 궁내부(宮內府)의 장토(庄土)로 속하였는 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63) 홍양 감목관 첩비 2기 ‘監牧官鄭公聽愛民善政碑’(1702년 건립), ‘監牧官趙公重岱永世不忘碑’(1835년 건립)는 2019년 고흥군 향토문화유산 1호로 지정되었다. 본래의 자리는 알 수 없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훼손되었던 것을 마을주민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

64) 『여지도서』(1759) 홍양현 목장조.

65)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226쪽.

### Ⅲ. 『계본등록(啓本謄錄)』의 우슬곶 둔전과 녹도 둔전

이순신의 장계와 일기에 언급된 도양 둔전은 지금의 고흥군 도양읍에 소재한다. 1606년(선조 39) 이운룡(李雲龍, 1562~1610)의 기록에서 임진왜란 때 도양 둔전지가 우슬곶, 녹도 주변 공한지(空閑地)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번 장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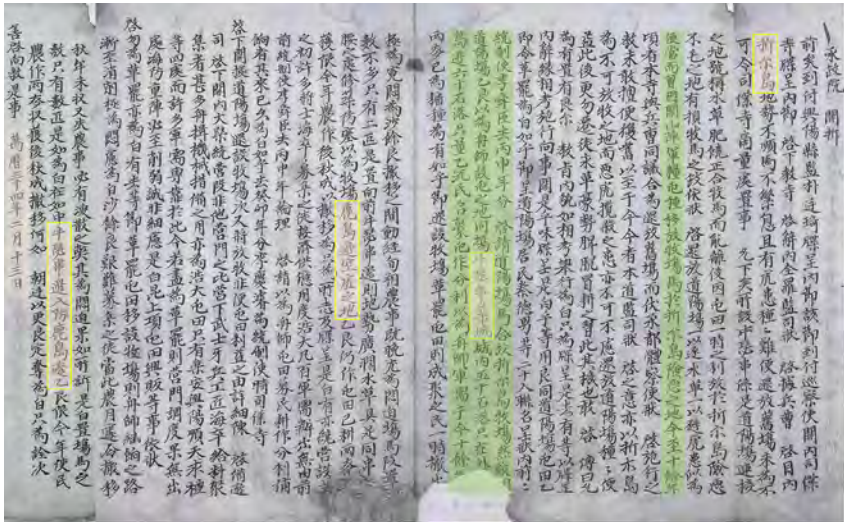
이운룡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7월 초 한산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1593년 웅천현감, 1596년 경상좌수사로 제수되었다. 이운룡은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1605년 도총부 부총관 포도대장 겸 화기제조에 임명, 동년 7월 경상우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이운룡은 1605년부터 1607년까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하면서, 『거영일기(居營日記)』와 『계본등록(啓本謄錄)』을 남겼다.<sup>66)</sup> 『거영일기』는 1605년 7월 30일부터 1606년 9월 1일까지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계본등록』은 1605년 9월 15일부터 1607년 6월 1일까지 통제사로 재임 기간에 왕에게 올렸던 장계 138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헌들은 임진왜란 직후 수군의 활약상과 화기, 전선(戰船), 수군 편제, 훈련 과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조선시대 전쟁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sup>67)</sup> 현재 이 자료는 규장각에 기탁되어 있다.

66)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식성군 문적(거영일기 및 계본등록)(息城君 文籍(居營日記 및 啓本謄錄)) (국가유산청 누리집 인용).

67) 국가유산청 누리집 인용.

통제사 이운룡의 계본 중, 1606년 2월 13일의 장계는 도양 목장과 도양 둔전의 연혁을 알 수 있다. 다소 긴 내용이나,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전문을 제시한다.



〈그림 5〉 이운룡의 『계본등록 乾』, 만력 34년(1606) 2월 13일(출처-규장각)

[국역]68)

승정원에서 열어볼 것  
 일전에 접수된 홍양현감 박정기 첩정(牒呈) 내용에 요약된 이번  
 에 접수된 전라도 순찰사 관문 내용, 사복시 첩정 내용, 이번에  
 재가하신 사복시의 계사 내용,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에 근거한  
 병조의 계목 내용에,  
 절이도는 지세가 불순하여 말이 번식할 수 없고 또 호랑이에게  
 화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곧 옛 목장에 다시 방목하는 것

68) 국역은 재령이씨중친회, 『(국역)이운룡장군전서』, 2018, 67~70쪽 참조하였고, 내용 감수는 (재)한국학중앙연구원 나상필 연구위원.

은 어렵다고 한 결정에 옳지 않다고 할 것이 없다며 사복시에 명하여 재고하여 조치토록 하라고 윤허하셨습니다.

새로 설치한 우슬곶은 도양장에 연접한 땅으로 수초가 풍부하여 말을 방목하기에 적합하다고들 말하나, 왜란 후 둔전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절이도 험악한 불모지에 방목한 것으로 인해 말을 기르는 정책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장계에 의하면, 도로 도양장에 방목하는 것이 한편으로 수초의 풍부함을 따르고 한편으로 호랑이 걱정을 피할 수 있기에 편리하고 마땅할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도양은 한산도 군진의 군량 조달 둔전이었던 때문에 종종 목장의 말을 절이도 험악지로 옮겨 방목하였는데 지금까지 1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사복시와 병조가 같이 합의하여, 구 목장[도양]에 다시 방목하기로 하였는데 도 체찰사의 장계를 시행하라는 말씀을 받고도 감히 멋대로 구목장에 다시 옮기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본도의 관찰사가 올린 장계의 취지 또한 절이도를 방목할 수 없는 땅으로 여기고 있고, 무서운 호랑이를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하는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양장에 방목하는 것이 종종 편리하니 이후 다시 옮기지 않으면 호세가(豪勢家)의 오만함과 함부로 경작하는 습속이 영원히 혁파될 것이니 이번이 그 기회라고 감히 장계를 올리니 상감께서 윤허한다고 전교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교지의 내용대로 상고하여 거행하겠다고 첩정을 올린 바 있고, 첩정 내의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하라는 것이 관문의 취지였습니다. 첩정이 있음으로써 위 도양장 둔전을 즉각 혁파하라 명하셨습니다. 금번 도양장 주민 진덕남(秦德男) 등 20명이 연명으로 올린 소장 내용에, 전전 통제사 이순신이 지난 병신년(1596)에 장계를 올려 도양장 말을 절이도 목장에 합하여 방목한 연후 위 도양장은 수군의 둔전 설치 지역으로 삼자고 청하였습니다. 동 목장 우슬곶에 축성(築城)하여 성내 50섬지기, 성외 절이도 주변에서 60섬지기 정도에 유민을 모아의 둔전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나누어 수군의 군수(軍需)로 충당한

지 지금까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또 밀과 보리를 이미 심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로 목장을 설치하고 둔전을 폐지하면 모아 놓은 백성이 일시에 흩어져 버리니 몹시 원통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철거 이전하는 동안에 어느새 한 달이 지나 농사가 이미 늦어지니 더욱 걱정스럽고 초조합니다. 목장의 말도 수가 많지 않아 오직 2필뿐입니다.

얼마 전 우슬곶 주변은 지세가 광활하고 수초가 풍족하여 우슬곶 허리 부분에 성을 수축하고 방책을 세워 목장으로 하고, 녹도 주변 빈 땅은 둔전으로 일구어 이미 경작한 밀과 보리의 수확 기한이 되었습니다. 금년 농사를 지은 후 가을걷이하고 나서 농민을 철거 이전하도록 해달라고 소지와 첩정을 올렸습니다. 통제영 설립 초기 많은 장군과 병사 해군 등 모집한 무리의 살림살이와 대접할 물품이 매우 많아 모든 군수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전 통제사 이순신이 지난 병신년에 논리로 장계하여 수군 둔전에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하고 이익을 나누어 식량을 보충하자고 청한 적이 있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계묘년(1603) 이경준(李慶濬)이 통제사 시절에 상감께서 사복시에 내린 관문에 따르면, 대개 통영은 타 군영에 비할 데 없이 군영 소속 무사와 아병(牙兵), 공장(工匠), 해졸의 급료를 모은 것이 매우 많고, 배, 노, 기계를 갖춘 것 또한 매우 많습니다. 도양장을 다시 목장으로 설치하여 장차 말을 방목하면 둔전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못함은 상세히 비변사에서 하명한 공문 내용과 같습니다. 대체로 둔전은 다만 낙안, 홍양, 순천, 구례 등 4곳뿐인데 많은 군수품 보급을 여기에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모조리 폐지한다면, 군영의 군수품 조달과 출처 없는 해상방비의 중요 군진이 반드시 약화될 것이니 참으로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옵기에 위 항의 둔전을 매매하는 등의 일을 장계에 의하여 폐지하지 말도록 하옵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둔전을 폐지하고 목장을 이설하면, 수군의 식량을 이을 길이 점점 줄어들 테니 매우 염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모

집한 무리가 이런 농사철에 갑자기 칠수 이거를 를 명하여 가을 보리를 미쳐 거두지 못하고 또 농사를 놓치면, 반드시 백성이 흠여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 답답함과 초조함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목장 말의 수가 단지 서너 필 있다고 할진대, 우슬곶과 녹도 주변은 금년까지 한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짓게하고 밀과 보리 수확이 끝난 후에 가을걷이하고 칠수 이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정에서 다시 잘 논의하여 결정하시도록 절차를 갖추어 아되는 일입니다.

만력 34년(1606, 선조39) 2월 13일

1606년 사복시(司僕寺)는 흥양 지역 절이도의 지세가 불순하여 말의 번식이 떨어지고, 가축을 잡아먹는 호랑이 피해가 있어 절이도의 말을 도양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목장에 호랑이 피해가 있다는 기사는 『승정원일기』에도 있다. 1726년(영조 2) 우슬곶 마장(馬場)에 호랑이가 나타나 흥양 현감 송병보(宋炳普)와 포수 정두성(鄭斗星), 문기봉(文起奉) 2명이 파견되어 호랑이를 잡았다는 내용이 있다.<sup>69)</sup>

사복시와 병조가 도양장(道陽場)의 속장인 우슬곶과 녹도 주변 둔전을 폐지하고 목장으로 다시 운영하려고 하니, 도양장 주민 진덕남(秦德男) 등 28인이 연명으로 진정을 올렸다. 통제사 이운룡은 흥양의 목장 중 절이도가 목마(牧馬)에 유리한 조건임을 강조하였고, 우슬곶과 녹도 주변에 설치된 둔전은 그대로 두자고 요청하였다. 호랑이 피해로 절이도의 말을 우슬곶과 녹도 공한지로 옮기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백성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과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곳에 둔전을 쳤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69)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2월 3일.

이운룡의 장계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우슬곶 목장과 녹도 목장의 말은 1596년부터 1606년까지 약 10년 동안 절이도 목장으로 옮겨져 방목 중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1593년 윤11월의 ‘도양의 말은 절이도로 옮겨 합치면 말을 기르는 데 해가 없고, 군대에서 쓸 물자에도 보탬이 되기에 둔전 설치를 청하는 장계’ 내용과 일치한다.<sup>70)</sup>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절이도는 목장으로, 나머지 우슬곶과 녹도는 둔전으로 운용되었다.

둘째, 우슬곶 목장과 녹도 목장 주변 공한지는 통제사 이순신의 계청으로 수군의 둔전으로 인정받아, 수군과 모집된 백성이 같이 경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임진장초』와 『난중일기』에 전혀 없다. 이운룡의 기록을 근거로, 우슬곶과 녹도의 수군 둔전지가 임진왜란 때부터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흥 지역의 지역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우슬곶과 녹도 주변의 땅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군량미를 제공했다는 중요한 사료이다.

셋째, 우슬곶에 들로 쌓은 목장성(牧場城)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슬곶 허리에 성(城)을 쌓았고, 우슬곶 성을 중심으로 성내(城內), 성외(城外)로 구분하고 있다. 우슬곶에 목장성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성항(城項)은 성개, 성목 등으로 부르며, 목장으로 가는 목이라 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 당중 마을의 옛 이름은 ‘너멋골, 우슬리’라 하였다.<sup>71)</sup> 가야리와 용동리에는 목장과 둔전에 관한 지명이 있다.

우슬곶은 「비변사인 방안지도」(1750년경)에 ‘弓瑟串放馬處’가

70)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請設屯田狀」(1593년 윤11월 17일).

71) 고흥문화원, 『마을 유래지』, 2016, 367쪽, 376쪽.

표기되어 있으나, 다소 위치에 문제가 있다. 봉수대가 있는 장기산과 도양 목장이 우슬곶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비변사인방안지도」 우슬곶에는 마신당(馬神堂)이 그려져 있다.

우슬곶에 해당된 지명을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서 찾아보면, 도양면(道陽面)의 가야리(可也里), 당동리(堂東里), 대사동(大寺洞)이 해당한다. 우슬곶은 조선시대 도양면에서 1983년 도덕면이 되었다. 지금은 도덕면(道德面) 가야리와 용동리(龍洞里)이다. 우슬곶 성내는 지금의 용동리와 가야리에 해당하고, 성외는 가야리 일부 마을과 신양리 등이다.



〈그림 6〉 가야리 성향마을 입구 우측. 성축이 있다고 제보받은 곳. 고추밭에 성돌이 있다. 필자 촬영.  
 〈그림 7〉 가야리 성향마을 입구 좌측. 필자 촬영.

우슬곶 목장성을 찾기 위해 『고흥군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살폈다. 가야리 성향마을 입구를 ‘도양 목장지(道陽牧場址)’로 표기하였다.<sup>72)</sup> 현장 조사에서 성향마을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밭에서 석성축(石城築)을 확인할 수 있다.<sup>73)</sup> 도덕면 용동리의 오른

72) 고흥군·순천대학교박물관, 『고흥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 2003, 127~128쪽.

73) 2020년 도덕면 가야리 성향마을 이장 김영옥님의 제보에 의하면, 도덕면 가야리 1773-1(밭)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불균형한 큰 석축이 놓여있다고 하였다. 현재 오

쪽 바다는 1975년경 간척공사로 농지가 되었다.

이 지역은 육지 끝 돌출된 곳(岬) 지형이다. 곳은 목장의 특성상 말을 가두어 사육하고, 말의 수송에도 유리한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은 해남의 황원곶[황원반도=화원반도]과 흡사하다.



〈그림 8〉 도양읍 장계리 도양 둔전, 도덕면 가야리 둔전(1918년 지형도 고흥군 편집, 출처-한국국토정보지리원)

큰쪽 고추밭에는 수로가 있다. 동시에 목장성 돌로 보이는 석축이 보인다. 도로를 건너 득량만 바다로 내려가는 길에는 석축 대신 길이 바닷가까지 나 있다. 지금은 도양읍 신흥과 도덕면 용동을 잇는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2020년 8월, 2025년 2월 현장 조사)

성향 마을 앞에 펼쳐진 넓은 들은 성향들, 진등들로 지명에 남아 있다. 이곳이 우슬곶의 둔전지로 추정된다.

1825년(순조 25) 흥양현 도양면 당동리[현재는 도덕면 가야리 당동마을]에<sup>74)</sup> 거주하던 목리(牧吏)<sup>75)</sup> 방순욱(房順旭, 44세)이 작성하여 흥양현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가<sup>76)</sup> 있다. 당시 방순욱은 부인이 죽어 혼자되었으며, 아들 방안손(房安孫, 12세)과 9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sup>77)</sup> 흥양현 도양 목장에 소속된 목리는 27인이 있었다. 방순욱 가계는 목리 집안으로 여겨지나, 그의 부친과 조부, 증조의 직력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1898년(건양 원년) 궁내부(宮內府)의 필사본 자료, 『나주부흥양군도양목장전답두락결수급시작성명병록성책(羅州府興陽郡道陽牧場田畝斗落結數及時作姓名竝錄成冊)』(奎20137)에 ‘도양동변(道陽東邊)’이 부기되어 있다. 도양동변에는 신양리, 봉덕리, 대사리, 한적리, 동촌리, 당동리, 장전리, 가야리, 문곶지(門串地) 순으로 전답 결수와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sup>78)</sup> 대사리, 한적리, 동촌리, 당동리, 가야리는 우슬곶에 소재한 마을이다. 신양리, 봉덕리, 장전리, 문곶지는 도양곶과 그 주변 마을이다. 다만 이곳이 임진왜란 때부터 둔전지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 여러 마을은 조선 후기 전라좌수영의 둔전이 아닌, 궁내부 소관 장토(庄土)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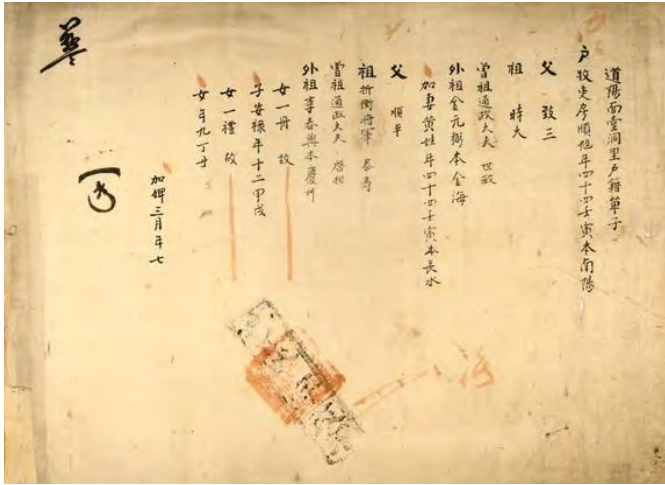
74) 성향마을 윗마을이 당동마을이다.

75) 牧吏는 조선시대 나라의 목장에서 소와 말을 관리하던 목장에 소속된 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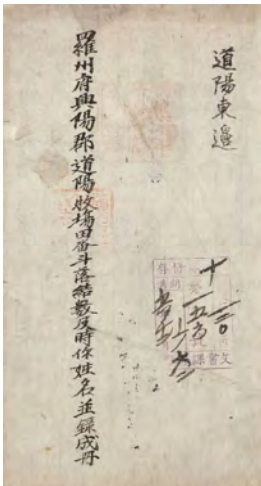
76) 호구단자란 호주가 자기 호(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함.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77) 1825년 방순욱(房順旭) 호구단자(戶口單子), 전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남원방씨가 호적문서 중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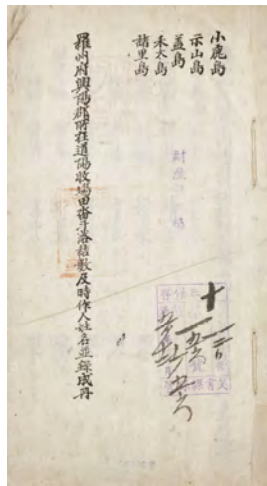
78) 나열한 마을은 1983년 도양읍에서 분리되어 도덕면이 되었다.



〈그림 9〉 도양면 당동리 방순옥 호구단자(1825년)  
(출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흥 남양방씨 기탁)



〈그림 10〉 흥양군 도양 목장 전답 두락결수및성명록, 도양동변(1896년).  
출처-규장각(奎20137)



〈그림 11〉 흥양군 도양 목장 전답 두락결수및성명록, 소록도 외(1896년).  
출처-규장각(奎20380)

같은 시기 나주부의 필사본 자료, 『나주부흥양군소재도양목장 전답두락결수급시작인성명병록성책(羅州府興陽郡所在道陽牧場田畝斗落結數及時作人姓名竝錄成冊)』(奎20380)에 소록도, 시산도, 개도, 태화도, 저리도의 전답 결수와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나열된 섬들은 1896년 도양목장에 속하면서 나주부에 조세를 내고 있었다. 절이도와 녹도가 없는 이유는 절이도와 녹도가 전라좌수영 아문의 둔전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우슬곶에 소재한 당동리에 거주한 목리 집안의 고문서와 궁내부 소관 도양 동쪽에 있는 전답 소재지를 기록한 자료는 신분과 지명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녹도진 공지에 설치한 둔전은 현재 ‘차경(且耕)’ 마을 지명으로 남아 있다. 도양곶과 우슬곶에 이어 1466년(세조 12) 녹도 목장과 절이도 목장이 설치되었다.<sup>79)</sup> 임진왜란 당시 통제사 이순신의 요청으로 녹도진 목장 주변에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미로 충당하였다.

『호구총수』(1789)에서 도양면의 차경리(且耕里), 진전리(陣田里)가 확인된다. 임진왜란 시기 수군진 녹도진의 둔전이었다가, 조선 후기 궁내부의 둔토로 편입되지 않고 진영 아문의 둔전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경’ 지명은 강진, 함평, 해남에 남아 있다. ‘둔전’ 지명은 여수 돌산읍, 진도 군내면, 무안 운남면 등에 있다. 모두 군영(軍營)의 둔전과 관련된 장소이다.

「1872년 흥양현 지도」에서 ‘차경’이 확인된다. 차경리는 지금의 도양읍 용정리 차경마을이다. 차경은 ‘차전차경(且戰且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둔전은 원래 군사로 하여금 군수에 충당하는 차전차경의 군사 목적용 특수 지목이다.

79)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2월 17일.



〈그림 12〉 도양읍 용정리 녹도 둔전, 차경마을, 안평마을  
(1918년 지형도 고흥군 편집, 출처-한국국토정보지리원)

『호구총수』(1789)에 기록된 진전리(陣田里)는 「1872년 홍양현 지도」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다. 『호구총수』에 없는 용정리가 「1872년 홍양현 지도」에 있다. 진전리는 지금의 도양읍 용정리 안평마을로 추정된다. 도양읍 봉암리에 소재한 비봉산(飛鳳山)의 오른쪽에 해당한다. 비봉산(飛鳳山) 왼쪽에는 녹도진이 있었던 진내리(鎭內里)이다.

안평마을에서 백옥마을로 가는 도로변 삼거리에는 1870년에 건립된 전라관찰사 서상정(徐相鼎)의 만추형사비(萬秋迴思碑)가 있다. 안평의 지명은 광복 후 붙여진 지명이다.<sup>80)</sup> 안평마을 옆 백옥마을은 과거에는 어촌이었으나, 간척지를 조성하여 농업마을이다. 이곳

80) 고흥문화원, 『마을 유래지』, 2016, 159쪽.

은 1886년부터 1888년 재임하였던 흥양 감목관 한억길(韓億吉)이 주축이 되어 북어포(北禦浦)에 제언을 쌓아 염전과 농사를 지었다.<sup>81)</sup> 북어포평(北禦浦坪)은 궁내부 명례궁 소관이었다.<sup>82)</sup>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흥양(고흥) 지역 도양 둔전을 연구하되 임진왜란 시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동시에 둔전에 앞서 도양 목장도 함께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기록을 좇아 도양 둔전에서의 소출, 도양 둔전 장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순신의 장계와 일기에 기록된 흥양의 도양 둔전 위치는 이운룡(李雲龍)의 기록에서 찾아졌다. 이순신의 기록 외 임진왜란 때 흥양의 목장 일부에서 군량미를 충당하였다는 이운룡의 기록을 근거로 도양 둔전의 실체를 밝혀보았다. 이어 흥양 지역의 둔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수군 군량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흥양 수군의 활약상도 일부 드러냈다.

흥양은 일찍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왜구는 육지 최남단에 있는 흥양의 경제적인 산물을 노리고 수시로 침략하였다. 이에 흥양은 수군진 4곳(녹도진, 여도진, 사도진, 발포진)과 봉수 시설을 배치하였다. 흥양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목

81) 고흥문화원, 『마을 유래지』, 2016, 342쪽.

82) 1898년(건양 원년) 궁내부(宮內府)의 필사본 자료, 『羅州府興陽郡道陽牧場田畝斗落結數及時作姓名竝錄成冊』(奎20137)에 궁내부, 북어포평의 전답 결수와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송호철, 「고흥 명례궁 북어포장토 분쟁과 지역민의 대응 : 일제강점기 역둔토 소유권 분쟁의 일사례」,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장 및 둔전(屯田), 송전(松田)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1593년(선조 26) 전라도 둔전 설치의 각 섬의 목장에서 이루어졌다. 그중 조선 수군의 군량미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고흥의 둔전은 도양 목장에서 주로 개간되었다. 목장지 일부를 개간하여 군량미를 제공하자는 이순신의 요청대로 전라도 남해안 섬과 육지 일부에서 둔전은 운영되었다. 이순신은 도양 목장의 말을 절이도로 옮기고 빈 도양 목장 일원에 둔전을 계획하였다. 도양 둔전 개간은 1593년에 계획되어 1594년 봄부터 시행되었다.

통제사 이순신은 도양 둔전의 곡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순천 돌산도와 흥양 도양장에 군관 송성(宋晟)과 이기남(李奇男)을 농감관(農監官)으로 보내어 백성과 군사들로 경작하게 하여 수확의 반은 관에 바치게 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경작한 둔전곡(屯田穀)이 5백 섬을 다음 해의 종자로 쓰게 한 것을 보면, 전라도 도서에 설치한 둔전의 규모가 방대했음을 알 수 있다. 전란 중 한산도에 주둔한 삼도(三道)의 수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량이었다. 도양 둔전을 비롯한 흥양 지역의 둔전 생산량은 삼도 수군의 군량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계원(繼援)은 군량을 모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난중일기』에는 흥양과 동북의 군량미를 제공하고 운반 직책을 맡은 계원 유사로 임영(林英)을 비롯하여 김덕린(金德隣), 류척(柳條), 송상문(宋象文), 신흥헌(申弘憲) 등 총 5명이 나온다. 특히 류척, 송상문, 신흥헌, 임영은 고흥 출신이다. 이들은 전선 외 ‘흥양의 군량선’을 끌고 흥양과 한산도 진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운룡의 『계본등록(啓本謄錄)』(1606년)에서 도양 목장 본장

(本場)과 도양 목장의 속장(屬場) 우슬곶과 녹도 주변 공지(空地)를 주목하였다. 다소 긴 내용이나,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전문을 제시하였다.

기록 속 현장을 찾아 둔전지의 위치를 밝혀보았다. 그 결과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군량미는 세 곳에서 경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본장(本場) 도양곶은 우슬곶과 연결한 작은 반도로 지금의 도양읍 장계리(長溪里)에 해당한다. 목장은 장계리 일대의 낮은 산에 설치하였고, 홍양 감목관의 업무처인 목장 관청(官廳)은 도양읍 관리(官里)에 소재하였다. 도양 둔전지는 도양읍 관리들(官里坪)로 보았다. 도양 목장의 목책(木柵)은 둘레가 83보(步)였다는 지리지도 주목하였다.

두 번째는 도양 목장의 속장(屬場)인 우슬곶은 지금의 도덕면 용동리와 가야리이다. 원래 말을 키우던 마장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요청으로 둔전지로 개간되었다가 전란 후에도 둔전지로 경작되고 있었던 곳이다. 아울러 우슬곶의 목장성(牧場城)은 둘로 쌓은 성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수군진 녹도진과 가까운 현재의 도양읍 용정리에 속한 차경마을, 안평마을을 녹도 둔전지로 보았다.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차경리(且耕里), 진전리(陣田里)는 지금의 차경마을, 안평마을이다.

이운룡의 『계본등록』(1606년)에는 우슬곶 목장과 녹도 목장 주변 공한지는 통제사 이순신의 계청으로 수군의 둔전으로 인정받아, 수군과 모집된 백성이 같이 경작하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임진장초』와 『난중일기』에는 없다. 이운룡의 기록을 근거로, 우슬곶과 녹도의 수군 둔전지가 임진왜란 때부터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흥 지역의 지역사에는 이

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우슬곶과 녹도 주변의 둔전에서 조선 수군의 군량미를 제공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임진왜란 시기 전라좌수영의 5관(순천부·광양현·낙안군·보성군·홍양현)과 5포(방답진·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 중 홍양현에는 1관(홍양)·4포(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가 있었다. 1관·4포에 소속된 군사들은 임진년 초기 해전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도양 목장의 말은 전투마(戰鬪馬)로, 목장 일부는 둔전을 일으켜 군량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홍양 수군의 전력(戰力)이 되었고,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 요소로 작동하였다.

이제까지 임진왜란 시기 도양 둔전을 살펴본 연구 성과가 드문 형편에서 도양 둔전 위주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홍양현의 물리적 역할을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추진되는 고흥 지역사 연구와 임진왜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사료〉

『세종실록』, 『세조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호남읍지』, 『통영지』, 『이충무공전서』, 『난중일기』, 『임진장초』

### 〈단행본〉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고흥군·순천대학교 박물관, 『고흥군의 호국유적 I -성곽』, 2001  
고흥군·순천대학교 박물관, 『고흥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 2003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고흥문화원, 『마을 유래지』, 2016  
재령이씨 종친회, 『(국역)이운룡장군전서』, 2018

### 〈논문〉

이장희, 「임진왜란 중 둔전경영에 대하여」, 『동양학』 제26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6  
송양섭,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사학보』 제7호, 고려사학회, 1999  
송호철, 「고흥 명례궁 북어포장토 분쟁과 지역민의 대응 : 일제강점기 역둔토 소유권 분쟁의 일사례」,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송은일, 「조선시대 흥양현의 목장」, 『해양문화연구』 제2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9  
정은주, 「17세기 목장지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김경옥, 「19세기 전라도 진도목장의 운영 실태」, 『남도문화연구』 32호, 남도문화연구소, 2017

이수경 외, 「고흥현 읍치(邑治) 이동과 읍치 관련 문화재 고찰」, 『호남학』 제67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1

〈누리집〉

국가유산청 누리집

한국국토정보지리원 누리집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누리집

<Abstract>

## A review of Doyang Dunjeon in Heungyang County seen through Yi Woon-ryong's 『GyeBonDeungNok』

Lee, Su-Kyong(Institute of Regional Heritage)

In this article, we studied Doyang Dunjeon in the Goheung area but focused on the period of the Imjin War, and looked at both before and after that. At the same time, prior to Dunjeon, the Doyang Ranch was also mentioned. Above all, following the records of Yi Sun-shin, he attempted to access the place of Sosin in Dundeon in Doyang and Dundeon in Doyang.

Yi Woon-ryong's 『GyeBonDeungNok』 found the location of the Doyang Dunjeon recorded in Yi Sun-shin's Janggye and Diary. In addition to Yi Sun-ryong's records, the truth of the Doyang Dunjeon was revealed based on Lee Woon-ryong's records that he provided for military training at a part of Heungyang's ranch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In addition,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Dunjeon in the Heungyang area revealed some of the activities of the Heungyang naval force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raining.

It can be seen that during the Imjin War, the physical foundation of the naval forces under Yi Sun-shin was in the Dunjeon at the Doyang Ranch in Goheung area. Due to the rare research results that have examined Doyang Dunjeon during the Imjin War,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physical role of Heungyang County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research focusing on Doyang Dunje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on the history of Goheung and projects related to Imjin War.

Keywords : Heungyang, Yi Sun-shin, Yi Woon-ryong, Doyang Dunjeon, Nokdojin